

경기

- 서울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 4월 서울지역의 생산지수는 98.2로 전년동월대비 2.2% 감소
 - 4월 서울 제조업부문 출하 증가, 재고 감소로 재고감소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
-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백화점 및 대형마트 각각 증가
 - 4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백화점 10.1%, 대형마트 3.8%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7.5% 증가
 - 대형소매점 판매 증가는 계절변화와 세일기간의 영향이라 예측됨
- 4월 서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상승, 5개월 연속 보합
 - 서비스는 전월대비 0.2%, 전년동월대비 2.1% 각각 상승
 -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5%, 신선식품지수 전월대비 6.2% 각각 상승

고용

-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상승
 - 4월 서울의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0.8% 증가,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대비 0.8%p 상승한 62.0%임
- 4월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 감소
 - 4월 서울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92천명(1.9%) 증가한 4,925천명인 것으로 나타남
 -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29천명(1.0%), 여자는 63천명(3.1%) 각각 증가
 - 청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6.0% 감소하였으며, 전국대비(-1.8%) 4.2%p 차이를 보임
 - 60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3.6% 상승하며 꾸준히 플러스 증가세
- 서울의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상승, 전국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4월 서울의 실업률은 남자는 6.1% 상승, 여자는 3.7% 하락
- 서울의 고용률 58.8%로 전국의 고용률(59.1%)보다 0.3%p 높은 수준

부동산

- 3월 기준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감소
 - 3월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8,908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8.2% 감소
 - 공공부문에서는 관공서, 신규주택공사 등의 수주 감소로 전년대비 57.8% 감소, 민간부문에서는 전년대비 재건축주택 및 재개발주택공사 등의 수주 감소로 48.8% 감소
- 4월 기준 서울 주택매매가격 강북지역 하락, 강남지역 보합 전환
 - 강북지역(-0.1%)에서는 노원구(-0.7%), 강북구(-0.3%), 도봉구(-0.1%)가 하락을 주도
 - 강남지역(0.0%)에서는 양천구(0.4%), 영등포구(0.1%), 금천구(0.1%) 순으로 상승
- 4월 주택전세가격 상승률 매매가격 상승률을 지속적으로 상회
 - 강북지역(0.6%)에서는 은평구(1.6%), 광진구(1.2%), 강북구(0.7%)를 중심으로 상승
 - 강남지역(0.5%)에서는 강서구(0.7%), 강남구(0.6%), 영등포구(0.6%)가 상승을 주도

금융

- 3월 기준 서울지역 대출금 잔액 전월대비 증가
 - 3월말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509조 654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0.03% 증가
- 3월 기준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2,044개로 전월대비 25.2% 증가
- 3월 기준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48개로 전월대비 26.3% 증가
- 4월 서울의 수출입 전년동월대비 증가
 - 4월 서울의 수출은 37.7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46.3% 증가. 수출 1순위는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다음은 자동차부품, 편직물, 합성수지 등의 순
 - 4월 서울의 수입은 89.2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41.9% 증가. 수입 1순위는 석유제품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반도체, 컴퓨터, 의류 등의 순

| 생 · 산 |

4월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2.2% 감소

■ 4월 서울의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2.2% 감소

- 서울시 생산지수는 98.2(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2.2% 감소
- 업종별로는 의복 및 모피, 전기장비, 기타제품 등은 증가하였으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 기계장비 등에서 감소

■ 서울의 전년동월대비 중공업 부문 감소, 경공업 부문 증가

- 중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22.1% 감소하며 마이너스 성장세로 반등
- 경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10.3% 증가하여 2개월째 플러스 성장세 유지

■ 전국의 4월 광공업 생산, 전년동월대비 19.9% 증가

- 전국의 광공업 생산은 19.9% 증가
- 부문별로는 반도체 및 부품(-3.5%), 자동차(-1.1%) 등은 감소하였으나 영상음향통신(6.4%), 화학제품(4.0%) 등의 호조로 전월대비 0.2% 증가
- 서비스업 생산은 전문·과학·기술(-3.7%),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1.7%) 등은 감소하였으나, 예술·스포츠·여가(-5.9%), 보건·사회·복지(2.2%), 교육(2.1%) 등에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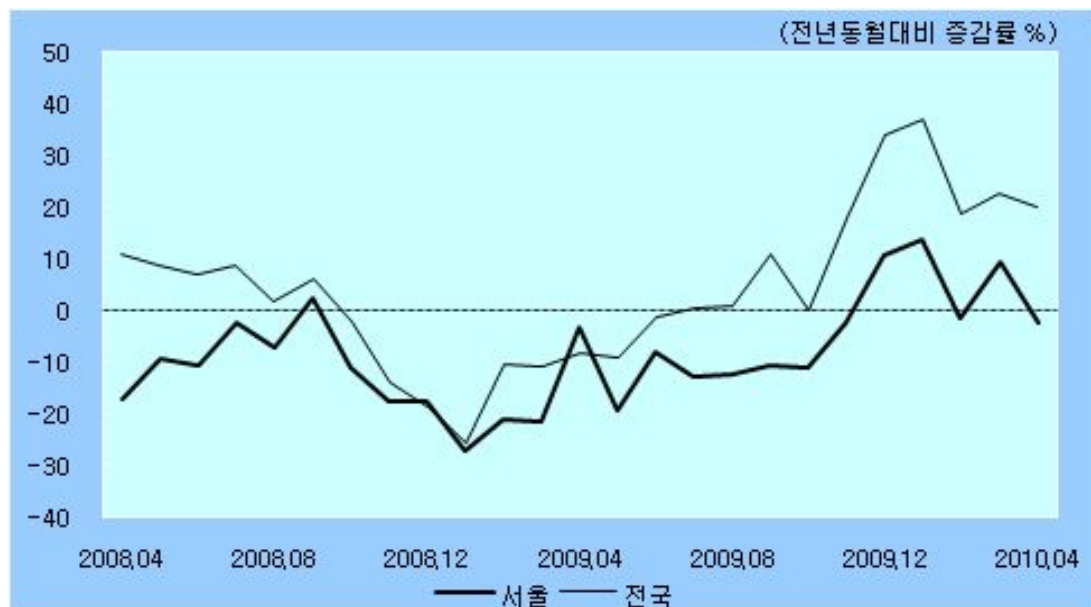
〈표〉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단위: 전년동월비, %)

구 분		2009년		2010년			
		4월	12월	1월	2월	3월p	4월p
전 년 동 월 비	서울 (제조업)	-3.0	10.7	14.0	-1.6	9.4	-2.2
	중공업	9.3	3.9	14.4	5.3	14.7	-22.1
	경공업	-9.4	14.5	13.9	-4.4	7.3	10.3
	전국	-8.2	34.2	37.0	18.9	22.5	19.9

주: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치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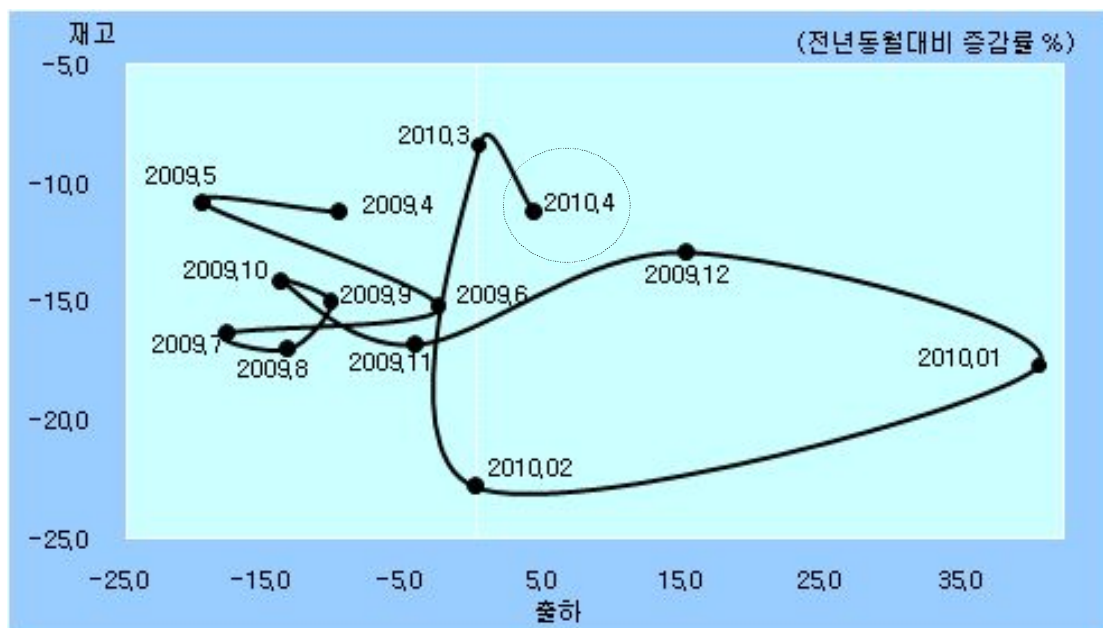


〈그림〉 서울과 전국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 출하 · 재고 순환 |

4월 서울 제조업부문 재고감소 단계

- 서울지역의 4월 중 생산자제품 재고지수는 141.0으로 전년동월대비 11.2% 감소
 - 업종별로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 식료품 등은 증가하였으나, 의복 및 모피, 섬유제품 등에서 감소
 - 생산자제품 출하지수는 99.5(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4.7% 증가, 업종별로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 등은 감소하였으나, 전기장비 등에서 증가
 - 출하 증가, 재고 감소로 재고감소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Box>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 서울 제조업부문 재고율 3.1% 감소, 부문별로는 중공업, 경공업 각각 감소

- 4월 서울 제조업부문 재고율은 143.3%로 전월대비 3.1%p 감소하였고, 전국 제조업부문의 재고율은 95.1%로 전월대비 0.4%p 증가함
- 서울의 산업부문별 재고율은 중공업부문이 전월대비 9.3%p 감소한 175.6%를 나타냈고, 경공업부문은 0.8%p 감소한 128.0%로 나타남

〈표〉 서울과 전국의 제조업 재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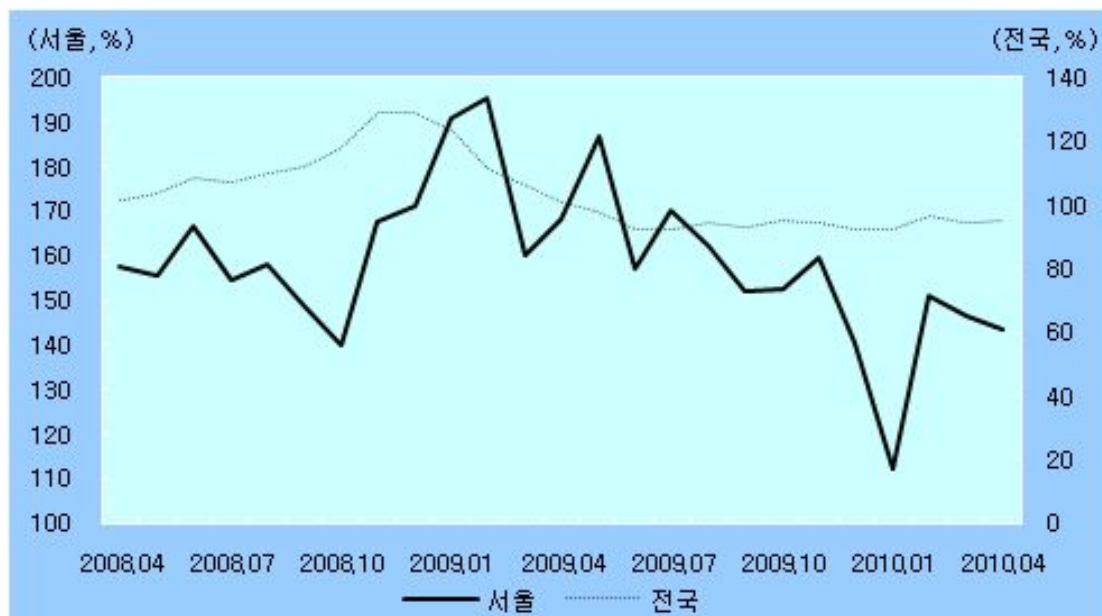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전월대비 증감
		4월	12월	1월	2월p	3월p	4월p	
재고율	서울	168.0	140.5	112.1	150.9	146.4	143.3	-3.1
	중공업	146.2	110.9	168.8	154.2	184.9	175.6	-9.3
	경공업	173.1	149.5	93.6	144.9	128.8	128.0	-0.8
	전국	100.6	92.6	92.2	96.3	94.7	95.1	0.4

주: 제조업에 대한 재고율 (계절조정재고지수÷계절조정출하지수)×100

서울의 재고율 (재고 원지수÷출하 원지수)×100,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

| 소 · 비 |

4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 7.5% 증가

■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백화점 및 대형마트 10.1%, 3.8% 각각 증가

- 4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5,341억으로 전년동월대비 7.5% 증가
- 전년동월대비 백화점 10.1% 증가, 대형마트 3.8%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백화점의 경우 꾸준히 플러스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형마트 역시 3개월 연속 상승. 계절의 변화와 세일기간 등의 영향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됨

■ 전국 대형소매점 판매액 7.7% 증가

- 전국의 4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4조4,934억으로 전년동월대비 7.7% 증가함
- 백화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8.8%, 대형마트는 1.9% 증가함
- 유형별로는 승용차, 컴퓨터, 통신기기 등의 내구재가 16.1%, 오락, 의복 등의 준내구재 3.6%, 식품, 화장품 등 비내구재는 3.3% 각각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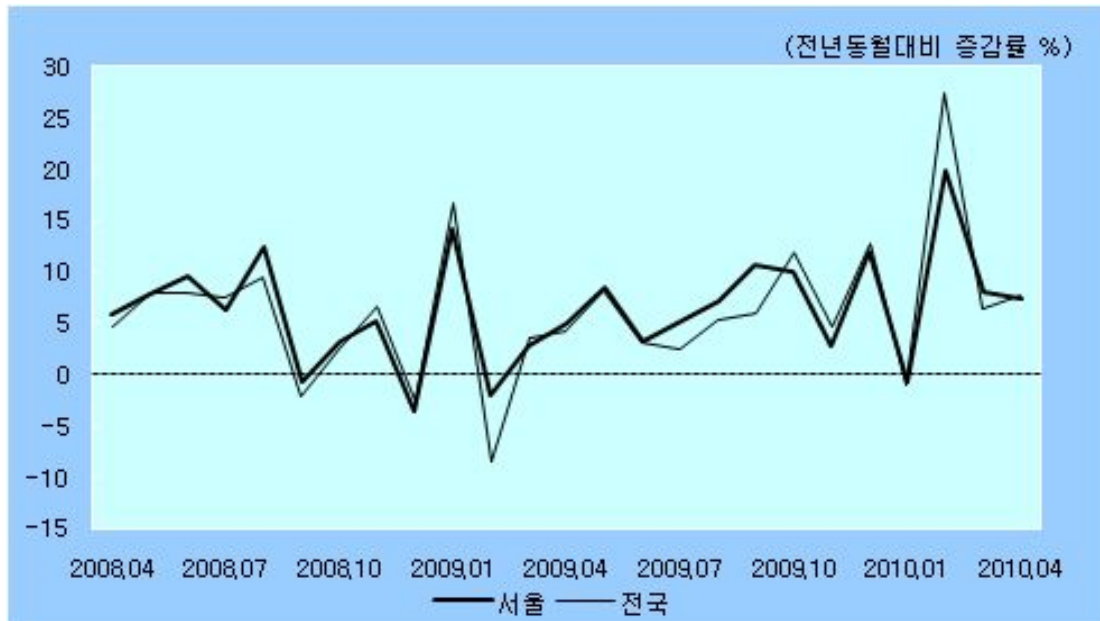
〈표〉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경상금액, 단위: 십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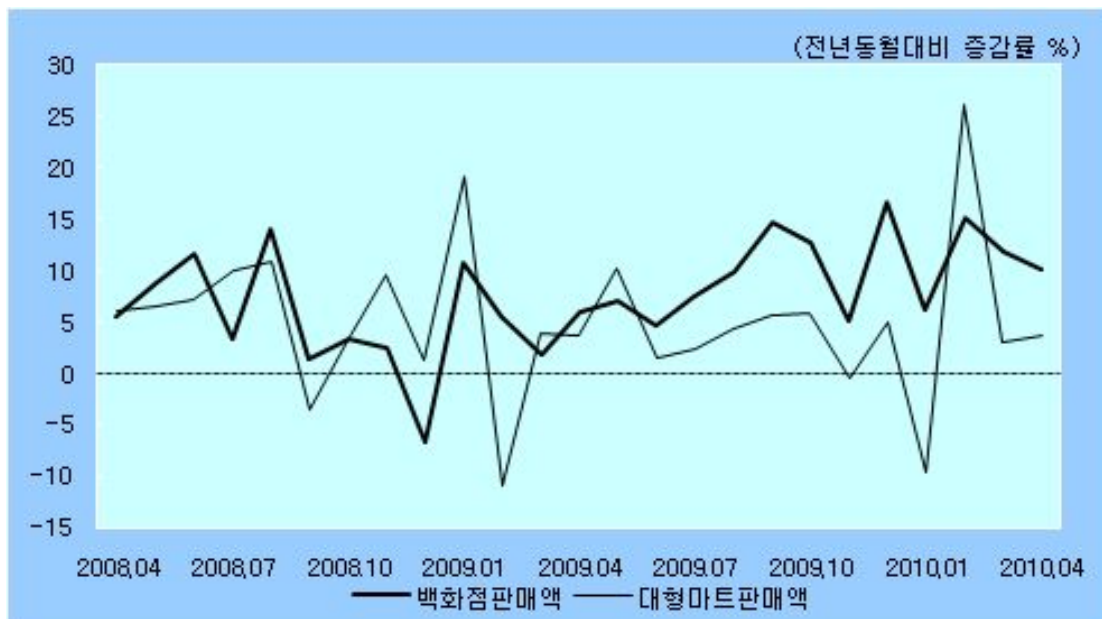
구 분		2009년		2010년			
		4월	12월	1월	2월p	3월p	4월p
판매액	서울	1427.2 (5.0)	1705.0 (11.9)	1571.8 (-0.7)	1529.7 (19.8)	1521.3 (8.0)	1534.1 (7.5)
	백화점	841.0 (6.0)	1048.3 (16.7)	943.0 (6.3)	852.1 (15.2)	886.2 (11.9)	925.8 (10.1)
	대형마트 (할인점)	586.1 (3.6)	656.6 (4.9)	628.8 (-9.7)	677.6 (26.1)	635.1 (3.0)	608.2 (3.8)
	전국	4172.6 (4.2)	5019.9 (12.8)	4738.6 (-1.1)	4805.4 (27.4)	4586.5 (6.4)	4493.4 (7.7)

주: ()안은 전년동월비임, 대형소매점은 매장면적이 3,000m² 이상인 소매점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할인점이 대형마트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 물 · 가 |

4월 서울의 소비자물가 전월대비 0.4% 상승

■ 4월의 소비자물가 전월대비 0.4% 상승, 5개월째 보합

- 4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15.0(전도시:115.0, 2005년=100)로 전월대비 0.4% 상승하여 5개월 연속 보합, 전년동월대비 2.5% 상승
- 서비스는 전월대비 0.2%, 전년동월대비 2.1% 각각 상승

■ 서울 생활물가지수 전월대비 0.5%, 신선식품지수 전월대비 6.2% 각각 상승

- 소비자들의 기본생활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5%, 전년동월대비 2.7% 각각 상승
- 생선류, 채소류, 과일류를 대상으로 한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6.2%, 전년동월대비 10.5% 각각 상승 (전도시: 6.3%)

■ 전국 소비자물가 전월대비 0.5% 상승하여 6개월째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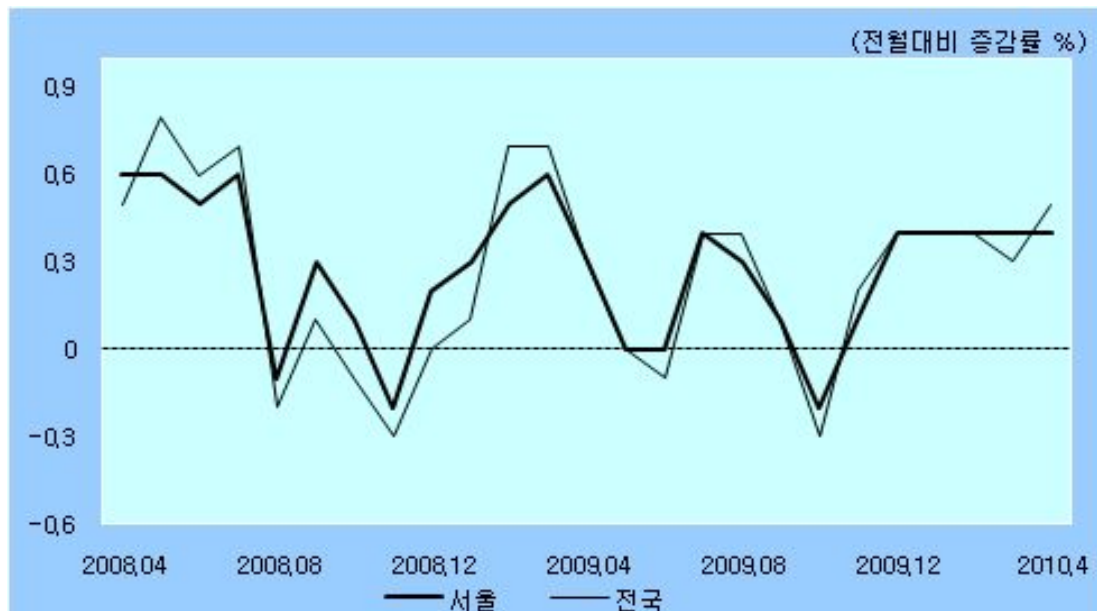
- 4월 전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5.6으로 전월대비 0.5%로 상승하여 11월 이후 6개월째 상승
- 생활물가지수 부문은 전월대비 0.7%, 전년동월대비 3.0% 각각 상승,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6.3%, 전년동월대비 12.1% 각각 상승
- 16개 시도별 전월대비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16개 시도 모두 0.2~0.6% 상승

〈표〉 소비자 물가 동향

(2005=100.0,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4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전월비	서울		0.3 (3.7)	0.1 (2.5)	0.4 (2.6)	0.4 (2.7)	0.4 (2.6)	0.4 (2.3)	0.4 (2.5)
	상품 성질별	상품	0.4 (6.1)	0.2 (3.8)	0.6 (4.2)	0.6 (4.2)	0.3 (3.3)	0.6 (2.8)	0.9 (3.2)
		서비스	0.2 (2.5)	0.1 (1.7)	0.2 (1.8)	0.3 (2.0)	0.4 (2.2)	0.3 (2.1)	0.2 (2.1)
	생활물가		0.7 (3.3)	0.0 (2.4)	0.4 (3.2)	0.6 (3.4)	0.4 (3.3)	0.5 (2.9)	0.5 (2.7)
	신선식품		3.6 (15.4)	-3.3 (3.6)	5.0 (5.2)	6.5 (4.5)	3.1 (6.0)	5.0 (7.8)	6.2 (10.5)
	전국		0.3 (3.6)	0.2 (2.4)	0.4 (2.8)	0.4 (3.1)	0.4 (2.7)	0.3 (2.3)	0.5 (2.6)

주: ()안은 전년동월비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소비자물가 추이(2005=100)

■ 멸치, 배추, 무, 파, 양파 등 전월대비 가격상승, 쌀, 고등어 가격하락

- 소비자들의 52개 생활필수 품목 중 신선식품의 전월대비 가격동향은 청과류의 경우 평균 19.0%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나머지 품목은 평균 2.7% 가격상승
- 청과류 중 무의 가격은 전월대비 32.39%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그 외 배추(17.90%), 양파(30.37%), 파(14.45%) 각각 상승, 마늘(0.00%)은 보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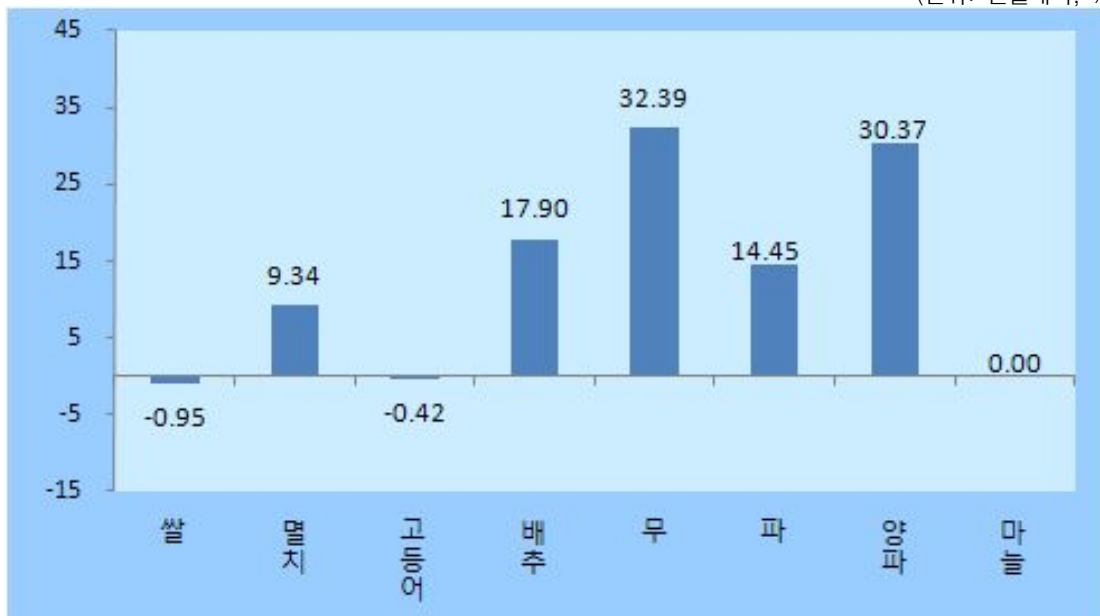
〈표〉 신선식품 가격동향

(단위: 전월비, 원, %)

구분		1월	2월	3월	4월	증감율
양곡 수산	쌀	34,200	34,200	33,864	33,545	-0.95
	멸치	19,250	21,842	22,500	24,818	9.34
	고등어	2,800	3,100	3,359	3,345	-0.42
청과	배추	475	711	1,041	1,268	17.90
	무	287	346	430	636	32.39
	파	1,180	1,589	1,450	1,695	14.45
	양파	600	685	970	1,393	30.37
	마늘	3,610	3,774	3,800	3,800	0.00

주: 52개 생활필수품목 중 신선식품만 선별하여 가격동향을 살펴보았음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단위: 전월대비, %)



주: 멸치(건증멸치 중품), 고등어 (중품), 배추(월동 중품), 무(가을 중품), 파(대파 중품), 양파 (중품), 마늘(간마늘 중품) 도매가 기준

〈그림〉 서울시 농수산물 시장의 월간 등락품목

| 경 · 제 · 활 · 동 · 인 · 구 |

4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62.0%로 전년동월대비 0.8%p 상승

■ 4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62.0%로 전년동월대비 0.8%p 상승

- 4월 15세 이상인구는 8,37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4천명(0.8%)이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인구는 5,18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2천명(2.0%)이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2.0%로 전년동월대비 0.8%p 상승, 남자는 73.2% 여자는 51.3%로 나타남
- 가사 또는 통학 등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3,18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8천명(-1.2%) 감소

■ 4월 전국의 경제활동참가율 61.4%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전국 4월 15세 이상인구는 40,48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12천명(1.3%)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인구는 24,85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02천명(1.6%)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4,535천명으로 186천명(1.3%) 증가하였으며, 여자는 10,323천명으로 216천명(2.1%)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1.4%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표〉 경제활동인구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4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경제활동인구	서울	-1.2 (0.3)	0.1 (1.2)	0.7 (-0.2)	0.7 (0.1)	2.2 (0.2)	0.8 (0.2)	2.0 (1.5)
	남자	-0.9 (0.1)	0.1 (1.5)	1.0 (-0.2)	0.7 (0.0)	1.5 (-0.1)	0.6 (0.3)	1.4 (0.9)
	여자	-1.6 (0.6)	0.0 (0.8)	0.4 (-0.1)	0.8 (0.2)	3.2 (0.6)	1.2 (0.1)	2.8 (2.3)
	전국	-0.2 (1.6)	0.2 (-0.1)	0.1 (-2.3)	1.6 (0.1)	1.6 (-0.2)	1.3 (1.4)	1.6 (2.0)
경제활동참가율	서울	61.2	61.1	60.9	60.9	61.0	61.1	62.0
	남자	72.7	72.8	72.6	72.5	72.4	72.6	73.2
	여자	50.4	50.0	49.9	49.9	50.2	50.2	51.3
	전국	61.2	61.1	59.7	59.6	59.5	60.3	61.4

주: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 취 · 업 · 자 |

4월 서울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 0.5% 증가

■ 4월 서울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1.9% 증가한 4,925천명

- 서울의 취업자는 4,92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2천명(1.9%)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796천명, 여자는 2,12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29천명(1.0%), 여자는 63천명(3.1%)이 각각 증가
- 산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농림어업 2천명(44.7%), 제조업 27천명(5.1%), 전가운수통신·금융업 30천명(4.0%), 사업·개안·공공서비스업 52천명(2.8%)이 각각 증가한 반면, 건설업 13천명(-3.6%), 도소매·음식숙박업 5천명(-0.4%)이 각각 감소
-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6.0% 감소하였으며, 전국대비(-1.8%) 4.2%p 차이를 나타냄
- 60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3.6% 상승하여 꾸준히 플러스 증가세를 이어감

■ 전국의 4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1.7%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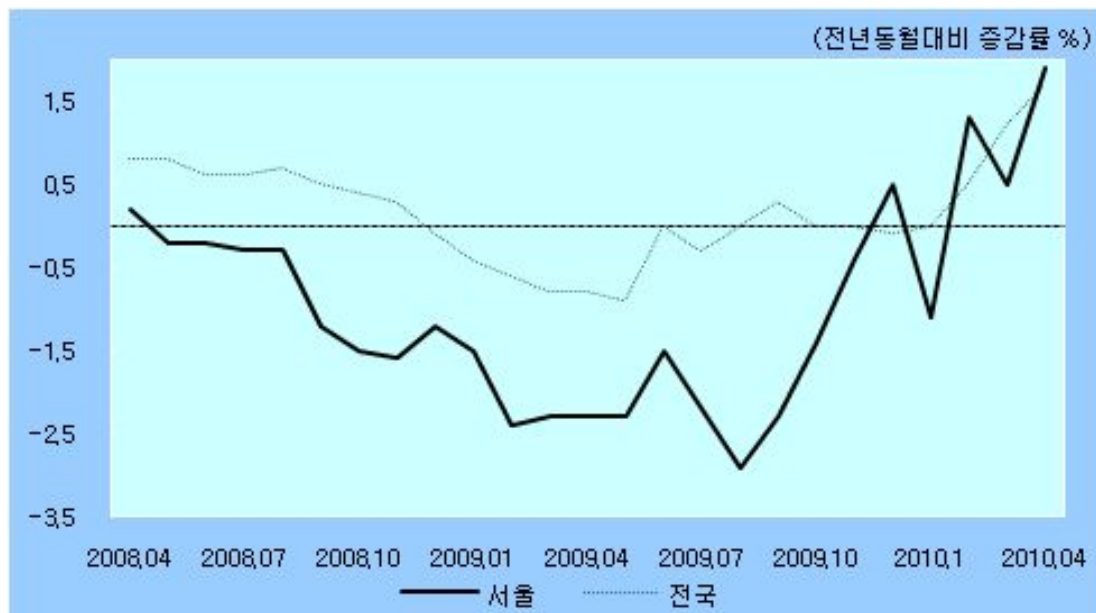
- 전국의 4월 취업자는 23,92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01천명(1.7%) 증가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3,92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7천명(1.4%) 증가하였고, 여자는 10,000천명으로 213천명(2.2%) 증가
- 연령계층별로 보면 20~30대는 감소한 반면, 그 외 연령계층에서는 증가
-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8% 감소, 고령층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4.0% 증가

〈표〉 연령별 취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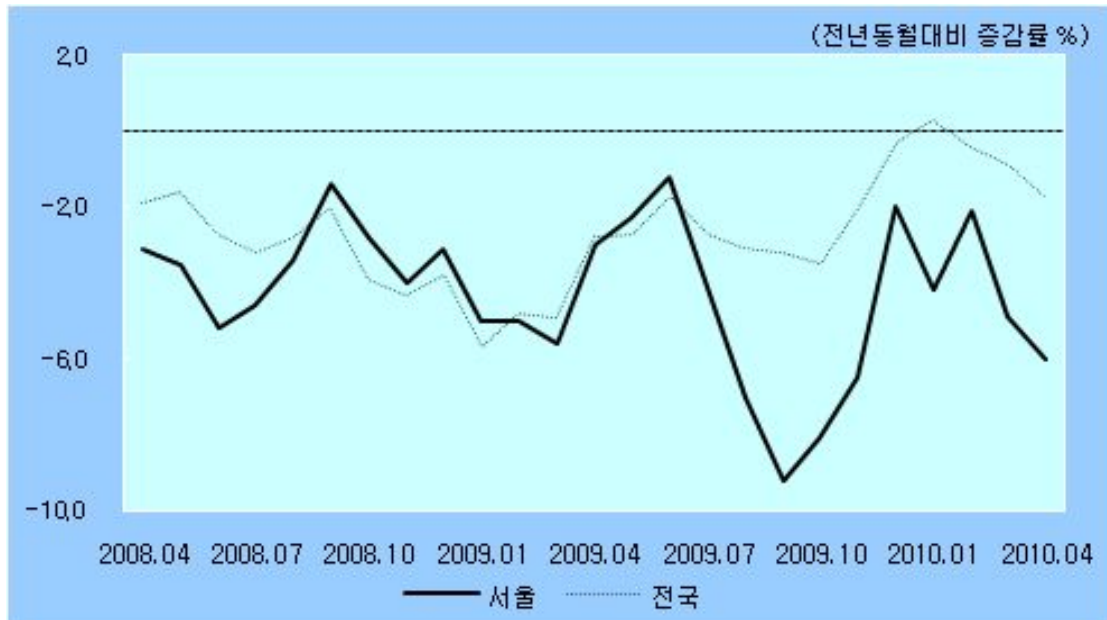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4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취업자	서울	-2.3 (0.3)	-0.4 (0.8)	0.5 (0.0)	-1.1 (-1.9)	1.3 (0.4)	0.5 (0.9)	1.9 (1.6)
	남자	-2.4 (0.4)	0.0 (1.1)	1.4 (0.1)	-0.9 (-2.4)	0.9 (0.1)	0.9 (1.1)	1.0 (0.6)
	여자	-2.2 (0.1)	-0.9 (0.4)	-0.7 (-0.2)	-1.4 (-1.3)	1.7 (0.8)	0.1 (0.6)	3.1 (3.1)
	전국	-0.8 (1.8)	0.0 (-0.2)	-0.1 (-2.4)	0.0 (-1.6)	0.5 (0.0)	1.2 (2.2)	1.7 (2.3)
청년층 취업자	서울	-3.0 (3.8)	-6.5 (1.6)	-2.0 (2.5)	-4.2 (-0.7)	-2.1 (-1.1)	-4.9 (-3.0)	-6.0 (2.6)
	전국	-2.8 (3.0)	-2.0 (1.7)	-0.3 (0.6)	0.3 (1.1)	-0.4 (-2.3)	-0.9 (-1.8)	-1.8 (2.0)
고령층 취업자	서울	-1.7 (0.6)	13.1 (0.8)	13.5 (-2.2)	3.8 (-10.1)	6.7 (0.6)	9.4 (8.1)	13.6 (4.5)
	전국	0.6 (5.7)	1.3 (-4.2)	-1.9 (-14.0)	-4.5 (-8.0)	-1.7 (3.0)	0.5 (12.7)	4.0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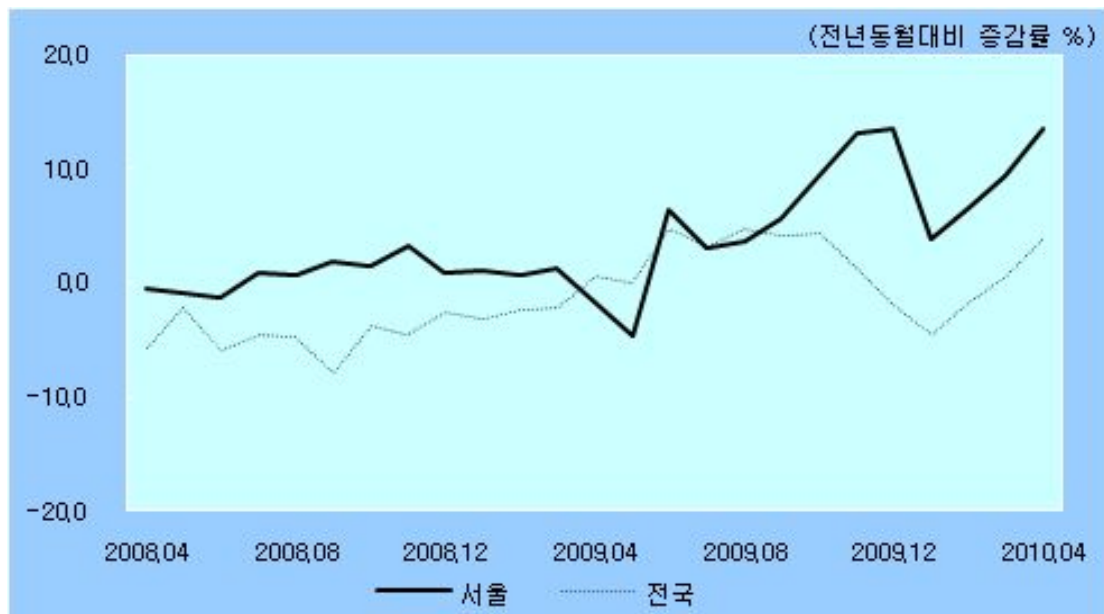
주: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60세 이상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청년층(15~29세)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 증감률 추이

-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전문기술행정관리자 등은 증가, 사무종사자 등은 감소
 - 직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135천명(10.6%), 전문·기술·행정관리자 3천명(0.2%)이 각각 증가
 - 서비스·판매종사자 30천명(-2.4%), 사무종사자 18천명(-2.1%)이 각각 감소

- 비임금근로자 전년동월대비 2.3%, 임금근로자 전년동월대비 1.8% 각각 증가
 - 취업자를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비임금근로자는 1,235천명이고, 임금근로자는 3,69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비임금근로자는 28천명(2.3%)이 증가하였고, 임금근로자도 64천명(1.8%)이 증가하였음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7천명(1.6%), 무급가족종사자는 11천명(6.6%)이 각각 증가하였음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118천명(6.0%), 임시근로자는 61천명(5.3%)이 각각 증가하였으나, 일용근로자는 114천명(-22.2%)이 감소

- 전년동월대비 36시간 미만 취업자 5.9% 증가, 일시휴직자는 -24.1% 감소
 - 36시간미만 취업자는 59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3천명(5.9%)이 증가하였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도 4,29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2천명(1.7%)이 증가하였음
 -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1~17시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0천명(10.4%)이 증가하였고, 18~35시간 취업자도 13천명(3.5%)이 증가하였음
 - 36시간 이상 취업자 중 36~53시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08천명(3.9%)이 증가하였고, 54시간 이상 취업자는 36천명(-2.5%)이 감소하였음
 - 일시휴직자는 4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천명(-24.1%)이 감소하였음
 -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6.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3시간 감소

〈표〉 산업별, 직업별, 종사상 지위별 취업동향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4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산 업 별	제조업	-20.3 (-9.0)	-6.6 (1.2)	-4.9 (1.1)	-7.5 (0.1)	0.3 (2.1)	-7.2 (3.2)	5.1 (3.1)
	SOC 및 기타서비스업	0.4 (1.6)	0.4 (0.8)	1.2 (-0.2)	-0.3 (-2.1)	1.4 (0.2)	1.6 (0.6)	1.5 (1.5)
	사업·개인·공공서비스	5.1 (2.5)	2.1 (0.1)	1.2 (-1.5)	-1.0 (-4.0)	0.0 (1.7)	1.9 (1.4)	2.8 (3.5)
	도소매·음식숙박	-1.6 (0.3)	3.0 (1.5)	2.4 (0.9)	3.0 (-0.5)	3.2 (-1.2)	1.0 (-1.8)	-0.4 (-1.0)
	전기·운수·통신·금융	1.6 (3.3)	1.2 (0.5)	5.2 (2.0)	2.8 (1.0)	6.6 (0.3)	6.7 (-0.8)	4.0 (0.7)
	건설업	-14.1 (-1.7)	-15.8 (2.4)	-10.6 (-2.0)	-14.6 (-5.9)	-9.3 (-2.4)	-7.5 (9.0)	-3.6 (2.4)
직 업 별	전문·기술·행정관리자	2.0 (2.4)	2.4 (0.2)	2.0 (-0.5)	1.2 (-1.1)	-0.7 (-0.6)	0.6 (-0.3)	0.2 (2.0)
	기능·기계작업·조립·단조종사	-11.4 (-3.4)	-2.5 (-3.3)	-1.2 (-1.9)	-0.4 (-4.9)	0.6 (3.4)	-1.5 (2.9)	10.6 (4.0)
	서비스·판매종사자	-1.9 (-0.2)	2.4 (-0.7)	-1.8 (0.6)	-4.7 (1.2)	3.3 (-1.8)	5.9 (-1.8)	-2.4 (-1.1)
	사무종사자	5.4 (3.2)	3.3 (1.7)	4.5 (2.5)	-0.1 (-3.6)	2.4 (1.3)	-0.2 (-1.1)	-2.1 (1.3)
종 사 상 지 위 별	임금근로자	-1.5 (0.1)	0.3 (1.0)	0.8 (-0.2)	-2.3 (-3.0)	0.7 (0.7)	-0.1 (1.0)	1.8 (2.0)
	비임금근로자	-4.9 (1.0)	-2.4 (0.2)	-0.4 (0.5)	2.6 (1.4)	2.9 (-0.4)	2.6 (0.5)	2.3 (0.7)

주: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 실 · 업 · 률 |

4월 서울의 실업률 5.1%, 고용률은 58.8% 각각 상승

- 서울의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5.1% 상승, 전국(3.8%)대비 1.3%p 높은 수준
 - 4월 실업자는 26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천명(3.9%)이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8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천명(6.9%) 증가, 여자는 82천명으로 2천명(-2.4%)이 감소
 - 실업률은 5.1%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6.1%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하였고, 여자는 3.7%로 0.2%p 하락
- 전국의 실업률 3.8% 상승, 전년동월대비 보합
 - 2010년 4월 실업자는 93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천명(0.1%)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61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천명(-0.3%) 감소하였고, 여자는 32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천명(0.8%) 증가
 - 실업률은 3.8%로 전년동월대비 보합
 - 성별로 보면 남자는 4.2%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하였고, 여자는 3.1%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하였음
 - 계절조정 실업률은 3.7%로 전월대비 0.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의 고용률 58.8%로 전국의 고용률(59.1%)보다 0.3%p 높은 수준
 - 4월 고용률은 58.8%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68.8%로 전년동월대비 0.3%p, 여자는 49.4%로 1.0%p 각각 상승
 - 서울의 고용률은 전국의 고용률(59.1%)에 비해 0.3%p 높은 수준임
 - 전국의 4월 고용률은 59.1%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70.3%로 전년동월과 동일하였고, 여자는 48.3%로 0.4%p 상승하였음
 - 연령계층별로 보면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계층에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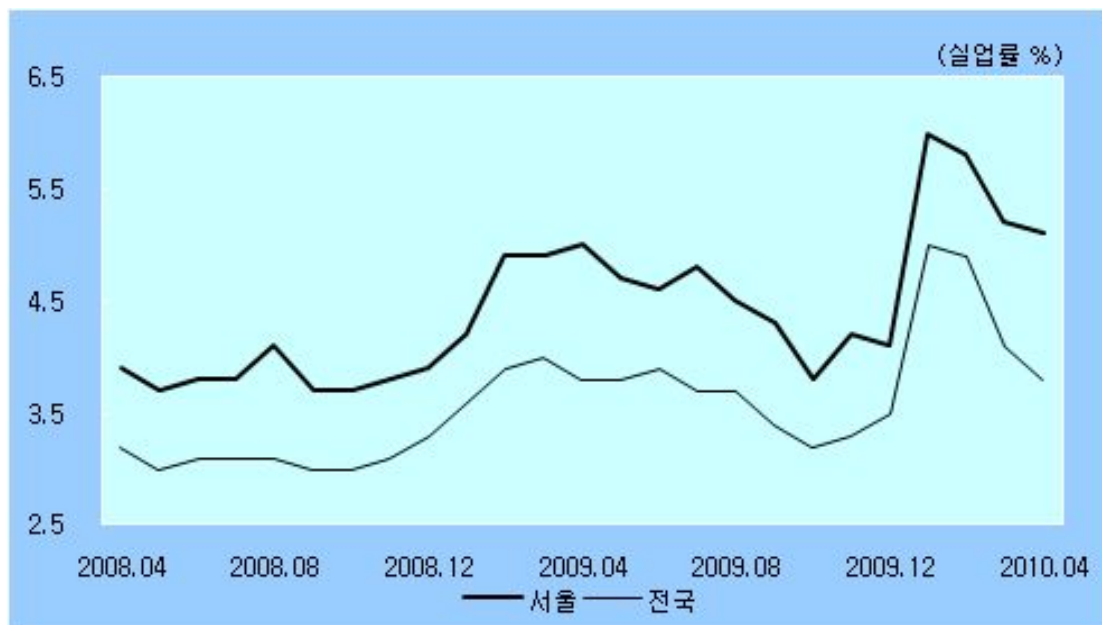
〈표〉 서울의 실업 동향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4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실업률	서울	5.0	4.2	4.1	6.0	5.8	5.2	5.1
	남자	5.8	4.7	4.4	6.7	6.5	5.8	6.1
	여자	3.9	3.6	3.6	5.1	4.9	4.5	3.7
	전국	3.8	3.3	3.5	5.0	4.9	4.1	3.8

		2008년		2009년				2010년
		1/4	4/4	1/4	2/4	3/4	4/4	1/4
청년층 실업률	서울	8.4	7.0	8.9	7.8	8.4	7.8	10.0
	전국	7.3	7.0	8.6	8.0	8.1	7.6	9.5
고령층 실업률	서울	2.6	1.2	2.0	3.2	2.0	1.7	7.2
	전국	1.6	1.1	1.6	1.9	1.6	1.5	5.8

주: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60세 이상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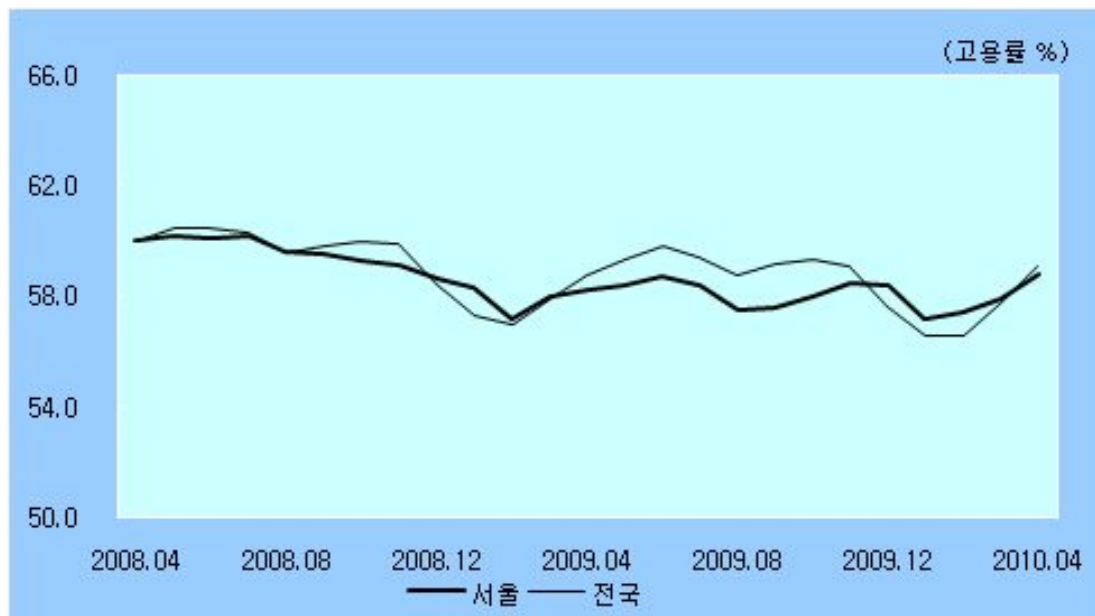
〈표〉 서울의 고용 동향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4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고용률	서울	58.2	58.5	58.4	57.2	57.4	57.9	58.8
	남자	68.5	69.4	69.4	67.6	67.7	68.4	68.8
	여자	48.4	48.2	48.1	47.4	47.7	48.0	49.4
	전국	58.8	59.1	57.6	56.6	56.6	57.8	59.1

		2008년		2009년			2010년	
		1/4	4/4	1/4	2/4	3/4	4/4	1/4
청년층 고용률	서울	46.1	43.9	45.6	43.8	42.8	42.8	40.1
	전국	42.0	39.9	41.1	40.7	40.1	40.1	36.4
고령층 고용률	서울	30.5	28.7	30.3	31.1	32.5	29.4	42.8
	전국	33.9	33.2	38.3	38.9	36.4	31.4	32.5

주: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60세 이상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고용률 추이

| 건 · 설 · 경 · 기 |

3월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감소

■ 3월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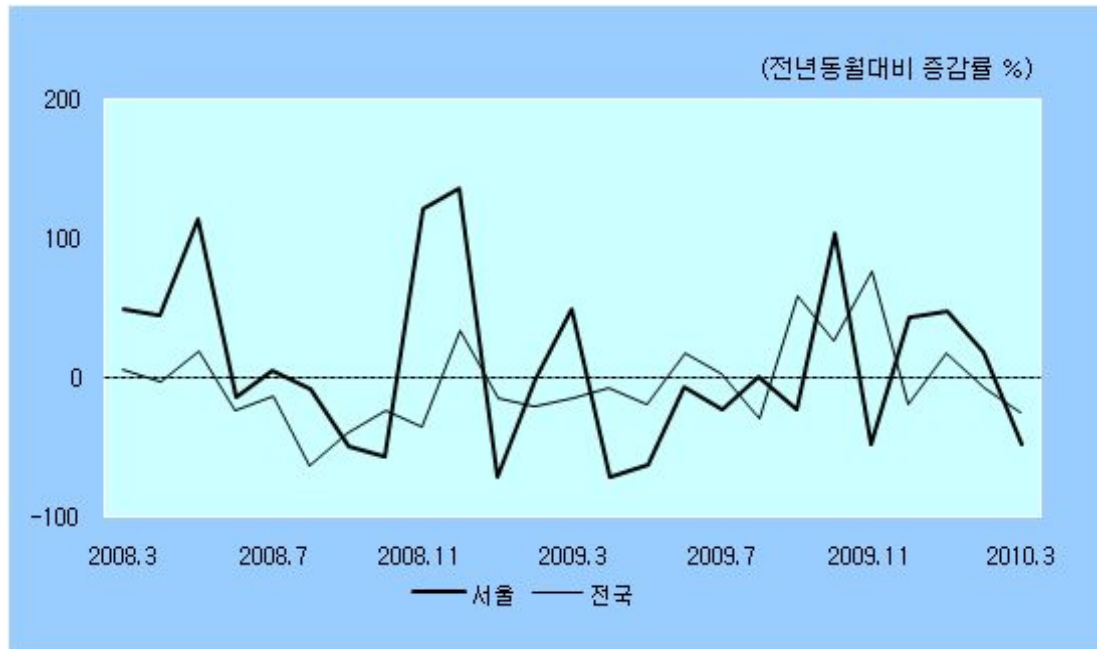
-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8,908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8.2% 감소
- 전국의 건설수주액은 5조 5,902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5.3% 감소
-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액은 전국대비 15.9%를 차지
- 공공부문에서는 사무실 및 관공서, 신규주택공사 등의 수주 감소로 전년대비 57.8% 감소, 민간부문에서는 전년대비 재건축주택 및 재개발주택공사 등의 수주 감소로 48.8% 감소
- 공종별로는 전년대비 건축부문은 57.1% 감소, 토목부문은 137.3% 감소

〈표〉 건설수주액

(단위: 십억 원, %)

구 분		2009년			2010년			전년 동월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3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서울		1,719	1,585	5,357	933	1,293	891	-48.2	-31.1
발주 자별	공공	505	512	1,089	109	362	213	-57.8	-41.2
	민간	1,183	1,061	4,247	778	931	606	-48.8	-34.9
공종 별	건축	1,641	1,095	4,627	828	1,094	705	-57.1	-35.6
	토목	78	490	730	105	199	186	137.3	-6.5
전국		7,481	14,425	17,611	6,643	4,615	5,590	-25.3	21.1

주: 발주자별 수주액은 국내외국기관, 민자공사 수주액이, 공종별 수주액은 전문공사 수주액이 제외된 수치임
 자료: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건설수주액 추이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서울 강남지역 상승세를 접고 보합 전환

■ 4월 전국의 주택매매가격 전월과 동일한 상승세 지속

- 4월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봄 이사철 수요가 마무리되어가는 가운데 0.2% 상승하여 전월과 동일한 상승세를 이어감. 지난해부터 지속된 금융규제 강화로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장기평균(0.5%)을 하회하는 수준이 유지된 가운데, 향후 주택가격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매수세가 위축되는 모습

■ 서울 강남지역 보합 전환, 강북지역 하락

- 서울 강남지역(0.0%)은 3개월간의 상승세를 접고 보합으로 전환되었고, 강북지역은 0.1% 하락함
- 부동산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와 보금자리 주택, 장기전세주택 공급에 대한 기대감으로 서울의 주택매매가격(-0.1%)은 지난해 3월 이후 13개월 만에 하락으로 전환됨

〈표〉 매매가격 지수 증감률

(2008.12=100.0,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4월		3월	4월		
서울	99.3		103.1	103.0	3.8	-0.1
아파트	99.0		102.9	102.7	3.8	-0.2
지역별 주택매매	강북	99.1	102.3	102.1	3.1	-0.1
	강남	99.5	103.9	103.9	4.5	0.0
전국	99.1		102.1	102.3	3.3	0.2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강북지역 0.1% 하락

- 강북지역(-0.1%)에서는 노원구(-0.7%), 강북구(-0.3%), 도봉구(-0.1%)가 하락을 주도하며 지난해 3월 이후 13개월 만에 하락으로 전환됨
- 노원구(-0.7%)는 위례신도시 등 보금자리주택으로의 관심 이동 및 경기침체와 대출규제의 영향으로 관망세가 심화됨에 따라 상계동과 월계동 등에서 매수세가 감소하며 하락함
- 강북구(-0.3%)는 정부의 DTI 규제와 경기침체로 매수세가 크게 감소한 가운데 5월 미아 뉴타운 입주 예정물량 증가로 인해 하락함

■ 강남지역 상승세를 접고 보합으로 전환

- 강남지역(0.0%)에서는 양천구(0.4%), 영등포구(0.1%), 금천구(0.1%) 순으로 상승하였으나, 강동구(-0.2%), 강서구(-0.1%) 등에서는 하락하며 3개월 간의 상승세를 접고 보합으로 전환됨
- 양천구(0.4%)는 오목교 역세권 개발 계획으로 인한 지가상승과 신정뉴타운 재개발 호재로 단독 및 연립주택을 중심으로 상승함. 강동구(-0.2%)는 강일2지구 장기전세주택(1,272세대) 6월 공급예정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락함

■ 4월 서울의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전월대비 하락

- 서울의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4월 30일 기준)은 1,839.49만원으로 전월(1,848.05만원) 대비 대폭 하락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을 상회하는 구는 강남구(3,372만원), 서초구(2,883만원), 용산구(2,591만원), 송파구(2,463만원), 양천구(2,007만원), 강동구(1,911만원), 광진구(1,890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음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에 하회하는 구는 금천구(1,029만원), 강북구(1,121만원), 중랑구(1,139만원), 도봉구(1,152만원) 등 순으로 나타남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서울의 주택전세가격 높은 상승률 지속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 상승률 매매가격 상승률을 지속적으로 상회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봄 이사철 수요가 마무리되면서 수급불균형이 다소 완화된 가운데 전월대비 상승폭이 축소되었으나 2009년 3월 이후 14개월째 상승세를 지속함
- 서울은 강북지역(0.6%)과 강남지역(0.5%) 모두 전월대비 상승폭이 축소되었고, 기타 지방(0.5%)도 상승폭이 축소되었으나 광역시(0.7%)는 상승폭이 확대됨

■ 주택구입 관망세 심화로 전세유지 수요가 증가하며 높은 상승세 지속

- 강북지역(0.6%)에서는 은평구(1.6%), 광진구(1.2%), 강북구(0.7%), 마포구(0.7%)를 중심으로 상승함
- 은평구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매수세가 위축된 가운데 보금자리 주택 및 장기전세 주택을 기대하며 전세유지를 선호하는 기존 세입자들의 재계약 증가 및 가재울 뉴타운과 응암재개발구역 이주수요로 전세물량이 부족해지면서 상승함
- 광진구는 강남권에서 전세를 구하지 못한 수요가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자양동, 광장동 등 교통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함. 강북구는 기존 전세 물량이 부족한 가운데 부동산 경기침체로 주택구입을 관망하며 전세를 유지하려는 수요 증가와 계절적인 수요, 신혼부부 수요 증가로 상승함
- 강남지역(0.5%)에서는 강서구(0.7%), 강남구(0.6%), 영등포구(0.6%), 관악구(0.6%)가 상승을 주도함
- 강서구는 지하철 9호선 개통 이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여 전세물량이 부족으로 상승함. 강남구는 경기불안과 부동산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전세유지를 선호하는 수요와 신혼부부, 1인 가구, 직장이동 수요 등이 맞물리면서 상승함

〈표〉 전세가격 지수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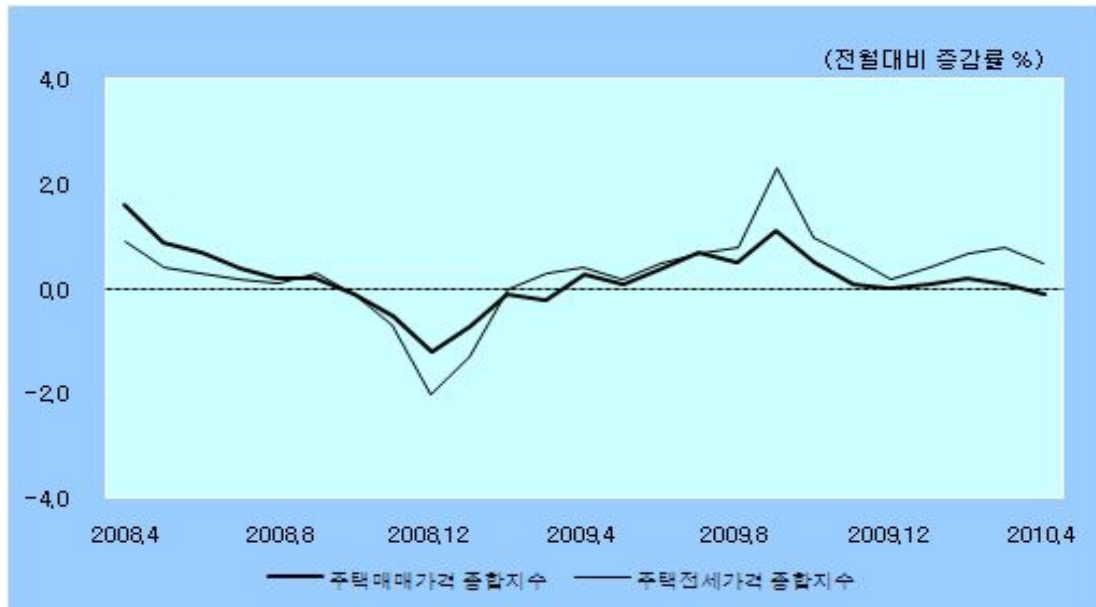
(2008.12=100.0,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4월	3월	4월		
서울		99.5	107.9	108.5	9.1	0.5
아파트		99.8	110.5	111.1	11.3	0.5
지역별 주택전세	강북	99.0	105.6	106.2	7.3	0.6
	강남	100.0	110.3	110.8	10.9	0.5
전국		99.1	105.0	105.7	6.7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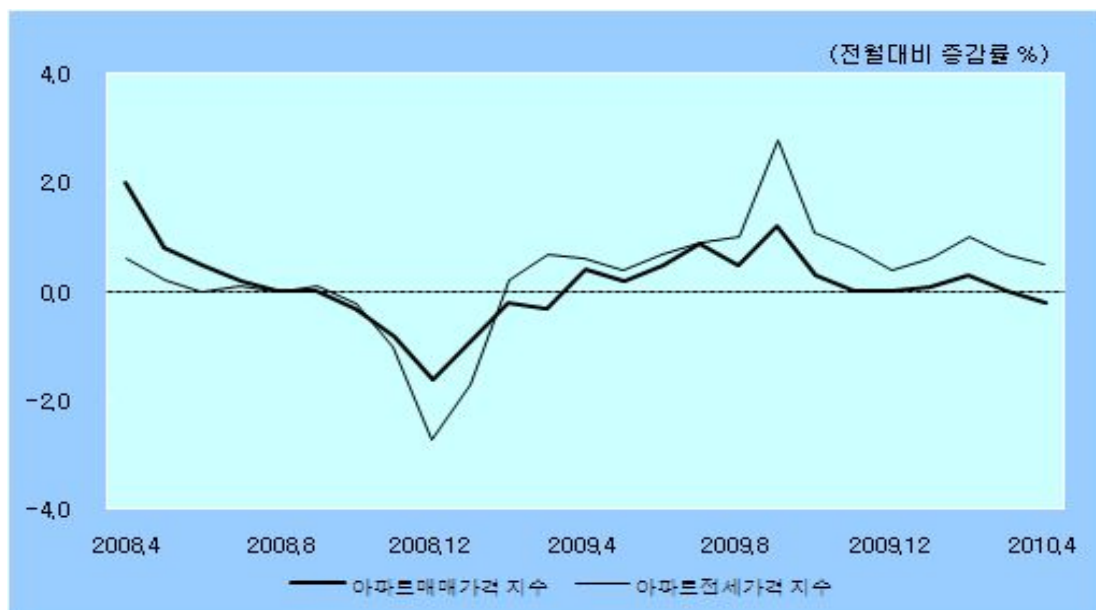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 전월대비 소폭 상승

- 4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41.5%로 전월(41.3%)보다 0.2%p 상승하여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
(2009년 12월 40.6% → 2010년 1월 40.7% → 2월 41.0% → 3월 41.3%)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3월 전국 평균 54.8%보다 13.3%p 낮은 수준이며, 전국과의 격차 전월(13.2%p)보다 소폭 상승
- 지역적으로 보면 그 비율은 강북 44.1%, 강남 39.3%로 강남과 강북의 격차는 4.8%p이며 지난 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지난 몇 달간 강남북간 격차는 줄어들었다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복하고 있음



〈그림〉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지수 추이



〈그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및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추이

| 시 · 중 · 자 · 금 · 사 · 정 |

4월 국고채 금리 큰 폭 하락

금리

■ 4월 중 국고채 금리 큰 폭 하락

-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지연 기대, 외국인의 국내채권 순매수 확대, 향후 채권 공급규모 축소 예상 등에 기인
- 다만, 4월말 이후에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 남유럽국가 재정위기 우려 재부각 등의 영향으로 큰 변동을 보이면서 소폭 반등

■ 회사채 금리 국고채 금리보다 더 큰 폭 하락

- 회사채(3년) 금리는 경기회복세 지속에 따른 신용위험 우려 완화, 상대적인 고금리 메리트 등으로 국고채 금리보다 더 큰 폭 하락
- CD(91일) 금리는 과도하게 확대된 은행채(3개월) 금리와의 스프레드, CD 발행물량 감소 및 일부 은행의 91일물 CD 실세금리 발행 등으로 대폭 하락

주가

■ KOSPI 지수 상승세 지속하다가 다시 하락 반전

- 4월 들어 코스피는 빠른 국내경기 회복 및 기업실적 개선,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 등으로 1,752p(4.26일)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일부 유럽국가의 신용등급 하락 및 재정위기 우려 확산 등의 영향으로 하락 반전
(1월말 1,602p → 2월말 1,595p → 3월말 1,693p → 4월말 1,742p → 5월 10일 1,678p)

■ 4월중 외국인 대규모 순매수 지속

- 외국인은 4월중 국내주식을 대규모로 순매수하며 주가상승을 주도
외국인 순매수(조원): 11월 2.0조원 → 12월 2.3조원 → 2010년 1월 0.7조원 → 2월 -0.0조원 → 3월 5.4조원 → 4월 5.5조원

〈표〉 주요 금융지표 추이

(기간 중 평균, 단위: %, %p)

구 분		2009년		2010년				전월대비 증감
		4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금리	국고채(3년)	3.76	4.24	4.29	4.19	3.94	3.77	-0.17
	CD(91일물)	2.42	2.82	2.88	2.88	2.83	2.51	-0.32
	콜금리(1일)	1.8	2.00	2.00	2.00	2.01	2.00	-0.01
	장단기 금리차 ¹⁾	1.34	1.42	1.41	1.31	1.11	1.26	0.15
주 가	KOSPI	1,322.10	1646.64	1682.16	1598.96	1665.50	1730.29	64.79
	KOSDAQ	484.22	498.35	535.44	505.32	518.70	512.86	-5.84
환율 (₩/US\$)		1,336.28	1,166.13	1,138.77	1,156.83	1,136.11	1,115.71	-20.40

주: 장단기 금리차 = 국고채-CD

자료: 한국은행

■ 4월중 은행 가계대출 전월대비 증가규모가 축소

-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은 대출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택거래 부진, 보증자리주택 공급계획 등의 영향으로 증가 규모가 소폭 축소
- 마이너스 통장대출 등 여타대출은 은행의 우량고객에 대한 신용대출 확대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식배당금 지급 등의 영향으로 미증에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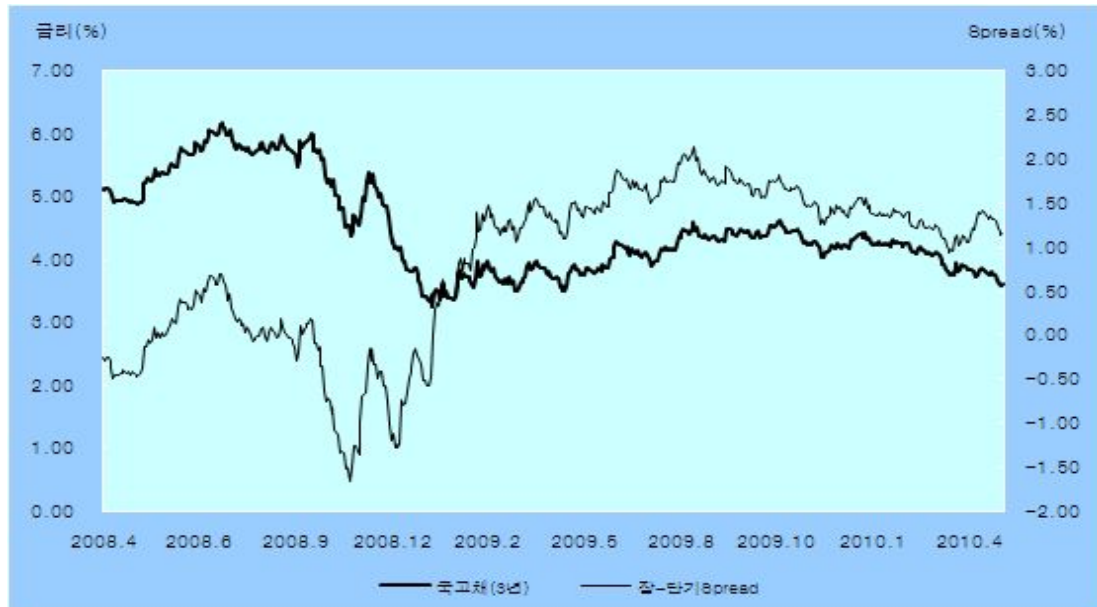
〈표〉 가계대출 증감 추이

(기간 중 말잔 증감,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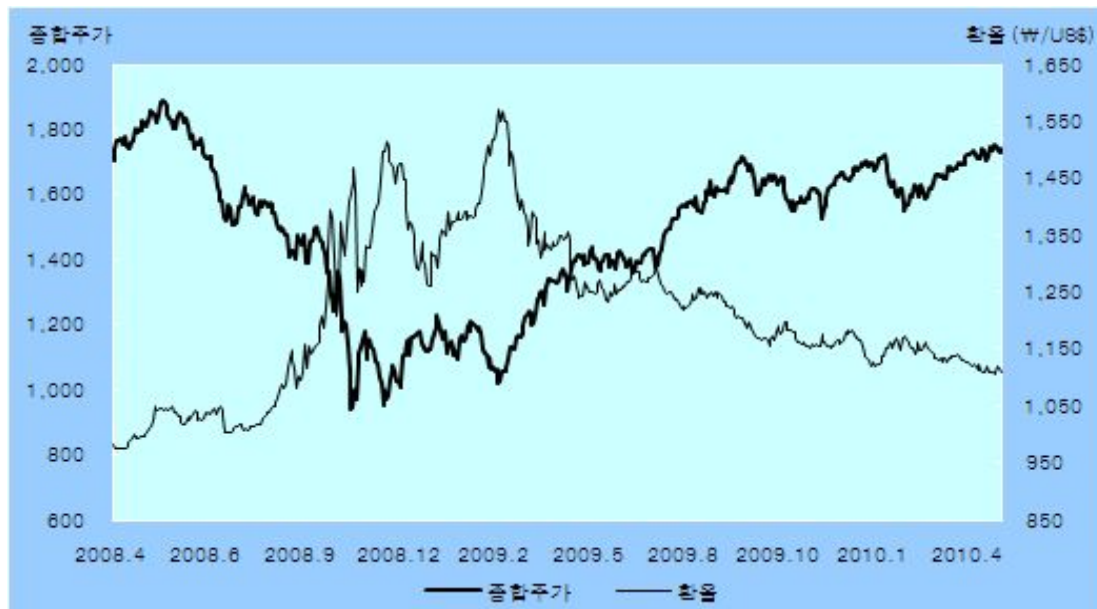
구 분	2009년	2009년	2010년				월말잔액		전월대비 증감률
	연중	12월	1월	2월	3월	4월	2010년		
							3월	4월	
가계대출 ¹⁾	20.1	0.5	-1.0	-0.2	1.9	1.7	409.3	411.0	0.42
주택담보대출 ²⁾	25.4	2.0	0.6	0.7	2.5	1.8	267.2	269.0	0.67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4.5	-1.5	-1.6	-0.9	-0.6	0.0	141.0	141.0	0.00

주: 1)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2) 주택자금대출 포함

자료: 한국은행



〈그림〉 주요 금리추이



〈그림〉 종합주가 및 환율 추이

■ 3월 기준 서울지역 대출금 잔액 전월대비 증가

- 3월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509조 654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3,281억원 (0.06%) 증가
- 3월 전국의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1,271조 6,450억원으로 전월대비 5조 8,808억원 (0.46%) 증가

〈표〉 서울시 금융기관¹⁾ 대출금 잔액 추이

(말잔, 단위 : 십억 원, %)

		2009년		2010년			전월대비 증감액	전월대비 증감률
		11월	12월	1월	2월	3월		
서울	예금은행	416,295.30	413,183.5	414,043.1	415,482.2	415,746.7	264.5	0.06
	비은행기관	85,148.70	93,086.7	92,677.0	93,255.1	93,318.7	63.6	0.07
	합계	501,444.00	506,270.2	506,720.1	508,737.3	509,065.4	328.1	0.06
전국	예금은행	934,597.30	953,505.2	955,782.2	958,052.8	962,695.9	4,643.1	0.48
	비은행기관	282,439.10	307,845.1	306,344.0	307,711.4	308,949.1	1,237.7	0.40
	합계	1,217,036.40	1,261,350.3	1,262,126.2	1,265,764.2	1,271,645.0	5,880.8	0.46

주: 1)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을 합한 예금취급기관 기준, 생명보험사 및 증권금융은 제외됨

| 신 · 설 · 법 · 인 · 동 · 향 |

3월 기준 서울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3월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2,044개로 전월대비 25.2%(411개) 증가하였고, 전년동월대비는 31.1%(485개) 증가
- 3월 전국의 신설법인은 5,652개로 전월비로는 21.1%(984개) 증가하였으나 전년동월비 23.8%(1,088개) 증가하여 2009년 6월부터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

■ 서울 모든 업종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3월 중 서비스업은 전년동월대비 25.0%(308개) 증가, 제조업 47.4%(110개) 증가하였고, 건설 및 설비업은 81.6%(71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모든 업종에서 신설법인수는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으며 건설 및 설비업의 증가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남

〈표〉 산업별 신설업종

(단위: 개소, %)

구분	2009년		2010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11월	12월	1월	2월	3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서울	1,559	1,971	1,812	1,633	2,044	411	25.2	485	31.1
서비스업	1,231	1,511	1,360	1,247	1,539	292	23.4	308	25.0
제조업	232	315	286	248	342	94	37.9	110	47.4
건설 및 설비업	87	132	150	132	158	26	19.7	71	81.6
전국	4,564	5,424	5,335	4,668	5,652	984	21.1	1,088	23.8

자료: 중소기업청

| 어 · 음 · 부 · 도 · 율 |

서울 어음부도율 전월보다 하락

■ 서울의 어음부도율 전월대비 하락, 신설/부도법인 배율 하락

- 3월 중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2%로 전월대비(0.03%) 하락한 수준, 전국의 어음부도율도 0.02%로서 전월대비(0.03%) 하락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48개로 전월대비 26.3%(10개) 증가, 전국의 부도업체수는 144개로 전월대비 29.7%(33개) 증가한 수준
- 서울의 신설법인/부도법인 배율은 55.2배로 전월(56.3배)보다 하락하였고, 전국의 신설법인/부도법인 배율은 53.3배로 전월(63.9배)보다 크게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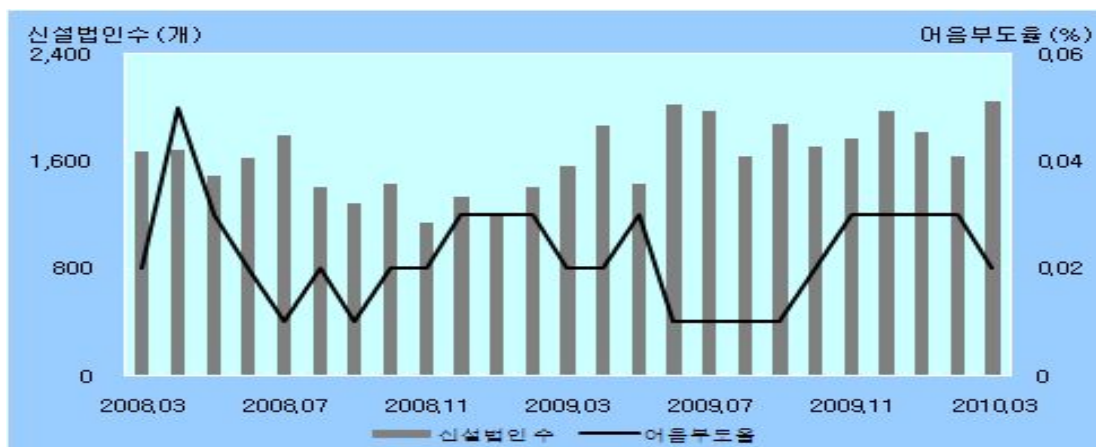
〈표〉 어음부도율 및 부도업체 수

(단위: 개소, %, %p)

구 분		2009년		2010년			전월비	
		3월	12월	1월	2월	3월	증감	증감률
서울	어음부도율	0.02	0.03	0.03	0.03	0.02	-0.01	-33.3
	부도업체 수	92	62	51	38	48	10	26.3
	신설/부도법인배율	24.0	39.4	51.8	56.3	55.2	4.5	-
전국	어음부도율	0.05	0.03	0.03	0.03	0.02	-0.01	-33.3
	부도업체 수	223	152	141	111	144	33	29.7
	신설/부도법인배율	30.8	49.3	51.8	63.9	53.3	12.1	-

주: 어음부도율은 전자결제 조정 후 수치임, 부도업체 수는 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중소기업청



자료: 한국은행,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의 창업 및 어음부도율 동향

| 신 · 용 · 보 · 증 · 동 · 향 |

신용보증 공급건수 및 공급금액 3개월 연속 증가

■ 보증 건수 및 금액 전월대비 3개월 연속 증가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은 4월중 7,004건, 139,032백만원 공급하여 전월대비 건수는 6.4%, 금액은 5.8% 증가하였으며, 전년 동월대비 하여서는 건수 기준 55.7%, 금액 기준 50.6% 감소

〈표〉 월간 신용보증 추이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2009년	2009년	2010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4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건수	15,828	3,577	1,997	3,988	6,580	7,004	424	6.4	-8,824	-55.7
금액	281,592	51,605	24,582	70,393	131,380	139,032	7,652	5.8	-142,560	-50.6
건당 평균금액	20.1	14.4	12.3	17.6	20.0	19.9	-0.1	-0.5	-0.2	-1.0

주: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도·소매업에 대한 지원 비중 증가

- 4월 기준 「업종별 신용보증지원 현황」에서 업종별 신용보증지원비중은 건수 기준시 도·소매업은 38.06%로 전월(35.64%)대비 2.42% 증가했으나, 제조업은 5.65%로 전월(5.93%)대비 0.28%, 음식·숙박업은 18.22%로 전월(18.31%)대비 0.09% 각각 감소하였으며, 금액 기준시 도·소매업은 42.20%로 전월(40.52%)대비 1.68% 증가했으나, 제조업은 6.89%로 전월(7.81%)대비 0.92%, 음식·숙박업은 17.84%로 전월(18.63%)대비 0.79% 각각 감소

〈표〉 월간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기타	합계
건수	396	2,666	1,276	1,063	1,603	7,004
비율	5.65	38.06	18.22	15.18	22.89	100
금액	9,578	58,677	24,802	20,786	25,189	139,032
비율	6.89	42.20	17.84	14.95	18.12	10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소기업에 대한 지원비중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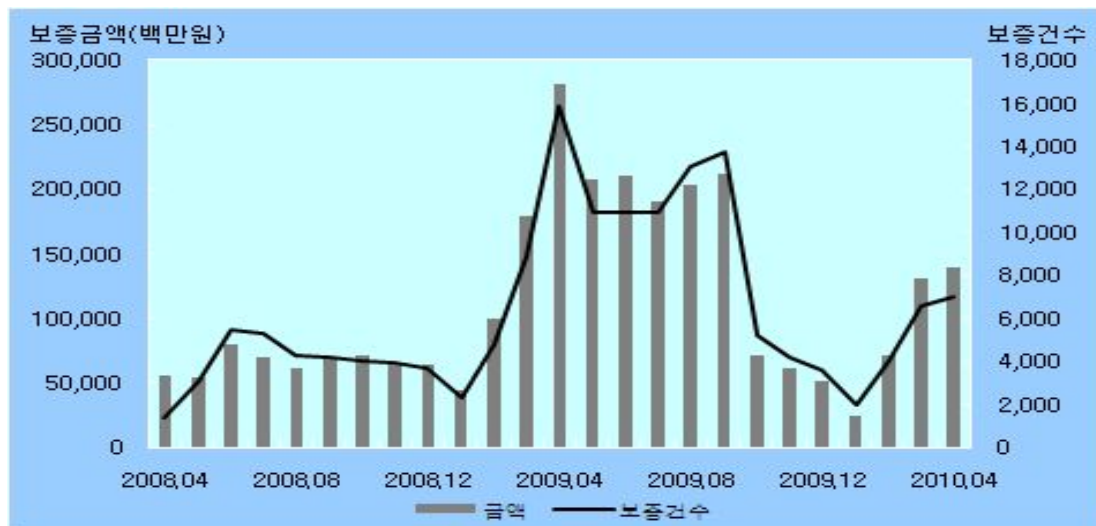
- 4월 기준 「기업규모별 신용보증지원 현황」에서 기업규모별 신용보증지원비중은 전수 기준 시 소기업이 2.6%로 전월(2.0%)대비 0.6% 증가했으나, 소상공인은 96.8%로 전월(97.3%)대비 0.5% 감소하였고, 금액 기준 시 소기업은 6.8%로 전월(5.6%)대비 1.2% 증가했으나, 소상공인은 90.7%로 전월(92.6%)대비 1.9% 감소

〈표〉 월간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2010.2	2010.3	2010.4	전월대비증감
소상공인	건수	3,894	6,401	6,781	380
	비율	97.6	97.3	96.8	-0.5
	금액	66,482	121,757	126,098	4,341
	비율	94.4	92.6	90.7	-1.9
소기업	건수	70	134	182	48
	비율	1.8	2.0	2.6	0.6
	금액	2,778	7,282	9,432	2,150
	비율	3.9	5.6	6.8	1.2
중기업	건수	24	45	41	-4
	비율	0.6	0.7	0.6	-0.1
	금액	1,133	2,341	3,504	1,163
	비율	1.6	1.8	2.5	0.7
합계	건수	3,988	6,580	7,004	424
	비율	100	100	100	0
	금액	70,393	131,380	139,032	7,652
	비율	100	100	100	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보증건수 동향

| 수 · 출 · 입 · 동 · 향 |

서울의 수출입 전년동월 대비 증가

■ 서울의 수출입 전년동월 대비 증가

- 4월 서울의 수출은 37.7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46.3% 증가하였고, 수입은 89.2억달러로 41.9% 증가
- 4월 전국의 수출은 394.3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30.0% 증가하였고, 수입은 353.8억달러로 42.2% 증가. 무역수지는 40.6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3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하며 올 들어 흑자 폭 최대
- 전국의 4월 수출은 2008년말 발생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며 월 수출액 기준 사상 두 번째 큰 기록임

■ 4월 기준 수출 1순위는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수입 1순위는 석유제품

- 서울의 품목별 수출의 경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가 348,883천 달러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다음은 자동차부품, 편직물, 합성수지 등 순
- 서울의 품목별 수입의 경우, 석유제품이 가장 많아 724,644천 달러에 달하였으며, 다음은 반도체, 컴퓨터, 의류 등 순
-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수출의 경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로 전년동월대비 824.0% 증가, 수입의 경우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로 전년동월대비 2,360.1% 증가

〈표〉 수출입

(단위: 백만 불, %)

구 분		2009년		2010년				전년동월비	
		4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증감	증감률
서울	수출	2,577	3,561	3,111	3,031	3,644	3,770	1,193	46.3
	수입	6,288	7,273	7,237	7,277	8,756	8,924	2,636	41.9
전국	수출	30,327	36,010	31,007	33,138	37,450	39,433	9,106	30.0
	수입	24,874	32,920	31,468	31,062	35,632	35,378	10,504	42.2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출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9년 4월		2010년 4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합계	2,577,101	-18.9	3,770,088	46.3
1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37,758	11.9	348,883	824.0
2	자동차부품	140,973	67.3	313,027	122.0
3	편직물	193,110	11.1	232,612	20.5
4	합성수지	105,670	43.5	214,978	103.4
5	반도체	111,633	10.1	204,174	82.9
6	컴퓨터	105,366	3.5	146,452	39.0
7	고무제품	99,310	4.5	138,006	39.0
8	무선통신기기	87,581	-40.0	128,728	47.0
9	합성고무	27,120	11.6	117,155	332.0
10	인조장섬유직물	83,294	39.8	94,998	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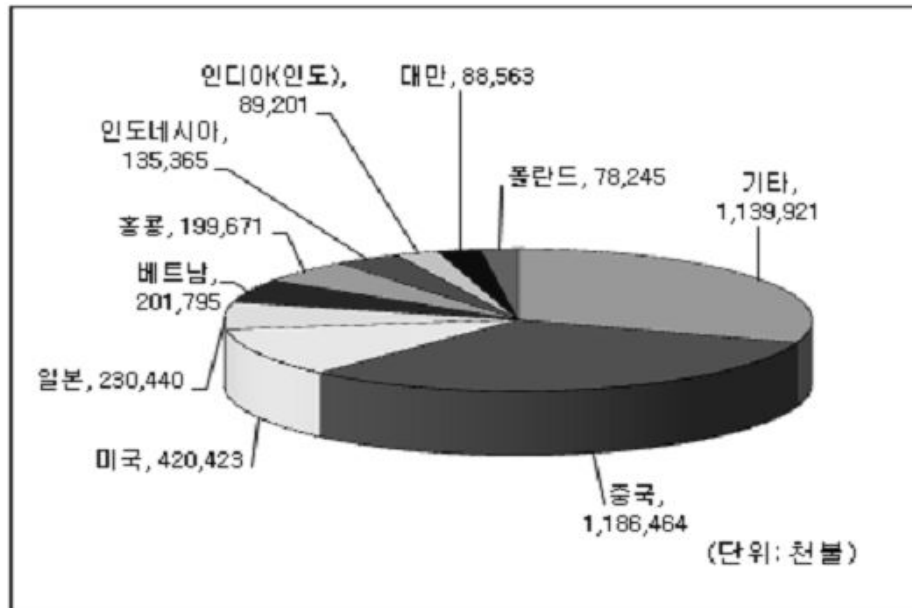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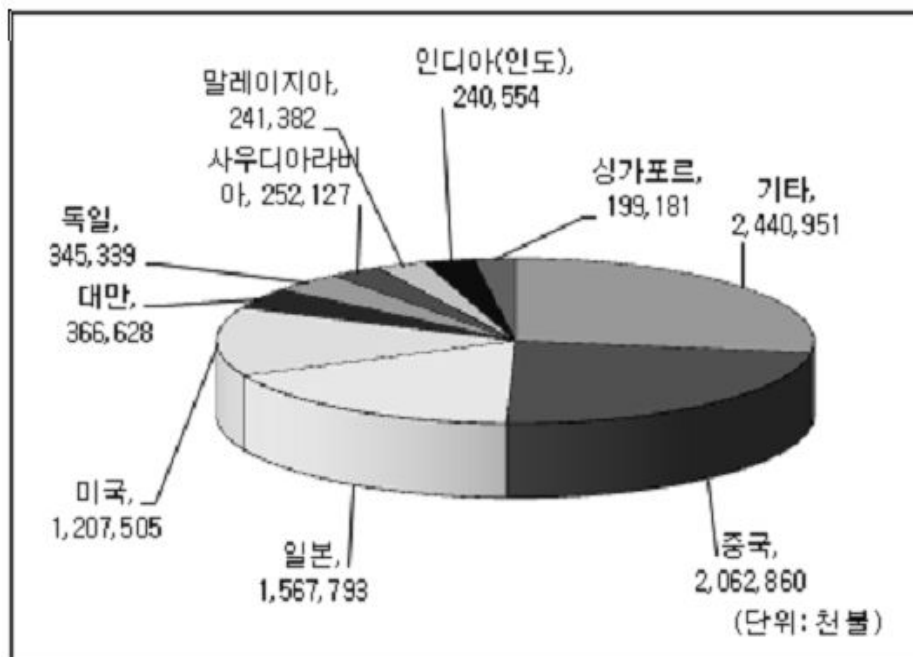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9년 4월		2010년 4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합계	6,287,820	-23.7	8,924,320	41.9
1	석유제품	181,742	309.8	724,644	298.7
2	반도체	678,244	58.5	699,625	3.2
3	컴퓨터	439,710	6.0	481,641	9.5
4	의류	209,263	13.6	264,939	26.6
5	플라스틱제품	175,628	148.7	232,988	32.7
6	자동차	139,553	18.8	209,430	50.1
7	철강판	62,572	-28.3	206,523	230.1
8	농약 및 의약품	115,736	4.1	200,789	73.5
9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135,478	75.3	195,629	44.4
10	평판디스플레이제조용장비	7,358	-94.2	181,014	2360.1

자료: 무역협회



〈그림〉 서울의 국가별 수출



〈그림〉 서울의 국가별 수입